2013년 8월 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31일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
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(중소기업청) 기업건강관리팀 권영학 팀장(042-481-8964), 박정은 주무관(8965)
• (중소기업진흥공단) 기업진단처 정연도 처장(02-769-6990), 박충환 팀장(6970), 서지원 부장(6971)
• (신용보증기금) 기업지원부 현창익 부장(02-710-4171), 이인수 팀장(4173), 김재범 차장(4651)
• (기술보증기금) 창업지원부 이훈 부장(051-606-7650), 신대현 팀장(7646), 임상순 차장(7647)

기업건강 관리시스템, 기업체질 개선효과 탁월
– 기업건강 진단기업의 성장성·수익성이 일반 중소기업의 2배 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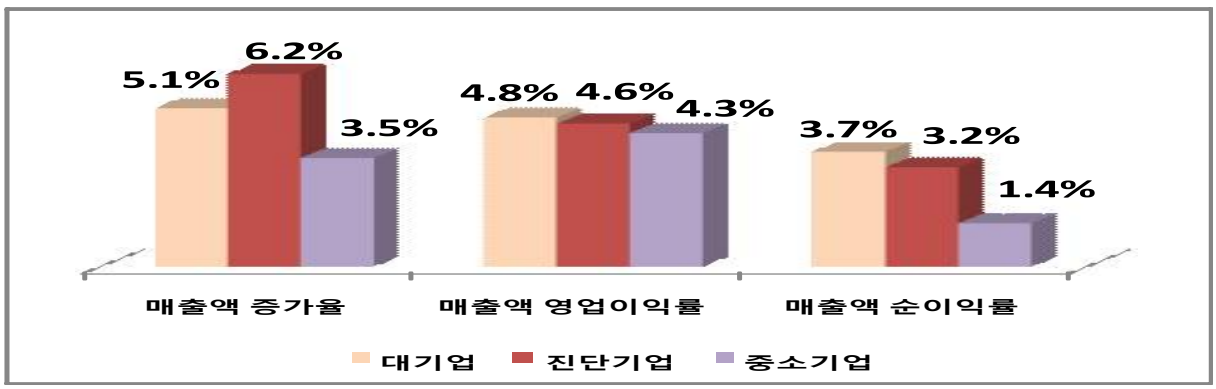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이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과 협업으로 운영중인 **'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*'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에 효과가 탁월**한 것으로 나타났음

○ 지난해 '건강관리시스템'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**매출액 증가율과 순이익률이 약 2배 높은 것**으로 나타남

* 기존 지원 방식에서 탈피,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, '기업건강 진단 → 처방전 발급 → 맞춤형 치유' 방식의 중소기업 문제해결형 프로그램

○ 진단기업의 **매출액 증가율(6.2%)이 대기업(5.1%)과 중소기업(3.5%)보다 높은 편**이고, **매출액 순이익률(3.2%)**은 대기업(3.7%)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나, **일반 중소기업(1.4%)에 비해 2배 이상 높음**

< 2012년 기업 경영분석 >



* 자료 : 진단기업은 CRETOP(크레탑, 한국기업데이터), 대기업·중소기업은 2012년 기업경영분석(속보, 한국은행)

□ 금년부터는 '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'을 **Two-Track으로 운영중**

○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**건강진단 기반의 맞춤형 지원**과 함께, 4월부터는 은행권 워크아웃 신청기업이 **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**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추진중

※ 별첨 :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 추진사례

□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'기존 칸막이식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, **지원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개별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**으로 **전환'을 시도**한 것으로,

○ 중기청은 "**중소기업 체질개선의 열쇠는 사업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보다는 기업 중심의 맞춤형 협업이 중요**"하다고 강조

1. 2012년 기업건강 진단기업 경영성과 분석

◇ 분석대상 : 지난해 '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' 활용기업 4,353개사*중 CRETOP(한국기업데이터 운영)에 등록된 2,343개사 재무현황 분석

* '12년도 건강관리 현황(개사) : (신청) 6,100, (진단) 5,874, (처방) 4,3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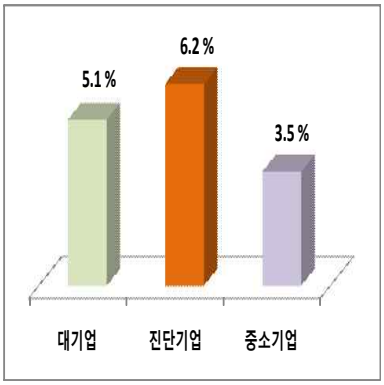
◇ 비교대상 : 한국은행 2012년 기업경영분석(속보치)

① **(매출액 증가율)** 지난해 진단기업의 **매출액 증가율은 6.2%**로, **대기업(5.1%)과 중소기업(3.5%)의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은 수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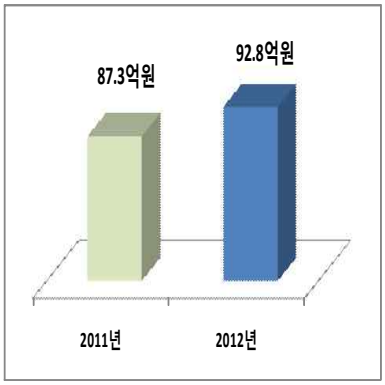
- 진단기업의 평균매출액은 92.8억원으로, 전년도 87.3억원 대비 6.2% 증가

- 진단기업(2,434개사)중 **매출액증가 기업은 62.6%인 1,523개사**인 반면, **매출액감소 기업은 37.4%인 910개사**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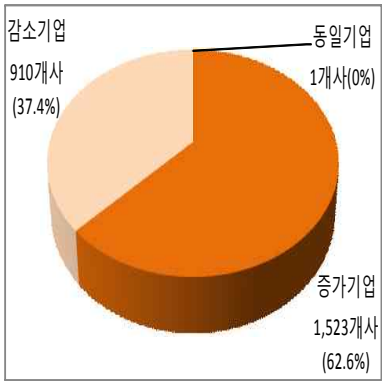
<매출액 증가율>



< 매출액 현황>



< 매출액 증감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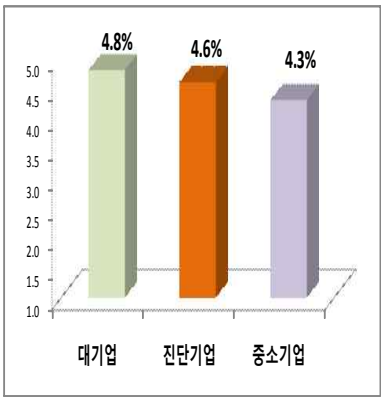


② **(매출액 영업이익률)** 진단기업의 '매출액 영업이익률'은 **4.6%**로, 대기업(4.8%) 보다는 낮고, **중소기업(4.2%)에 보다는 높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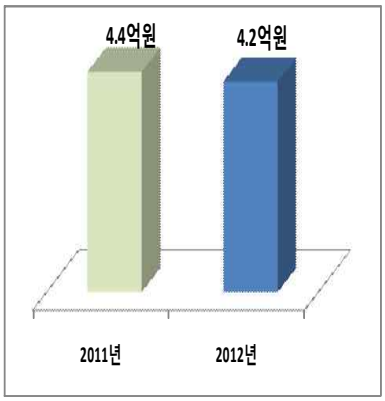
- 진단기업(2,434개사)중 **53.2%(1,296개사)는 영업이익률이 증가**한 반면, **45.5%(1,108개사)는 감소**하고, **1.2%(30개사)는 동일**한 것으로 나타남

- 진단기업의 평균영업이익은 4.2억원으로, 전년도 4.4억원 대비 2천만원 감소하였는데, 이는 경기불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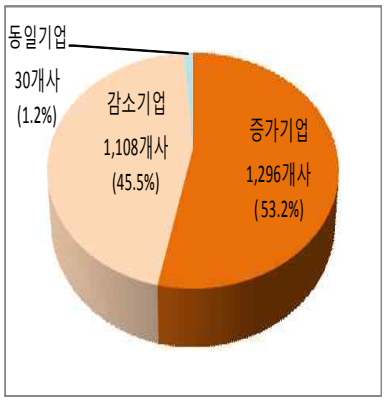
<매출액 영업이익률>



< 평균 영업이익 >



<영업이익률 증감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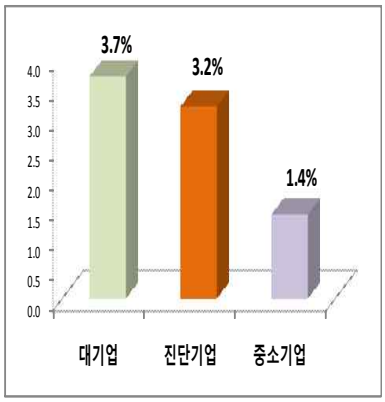


③ **(매출액 순이익률)** 진단기업의 '매출액 순이익률'은 **3.2%**로, 대기업(3.7%)에 비해 조금 낮으나, **중소기업(1.4%)에 비해 2배 높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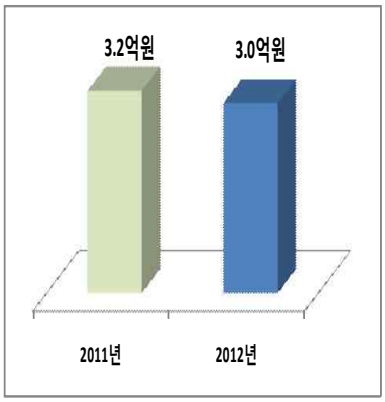
- 진단기업(2,434개사)중 **92.2%인 2,243개사가 당기순이익을 시현**하였으며, 흑자지속은 87.8%(2,137개사), 흑자전환 기업은 4.4%(106개사)

- 반면, **191개사(7.8%)가 당기순손실을 기록**하였는데, 적자지속은 2.0%(49개사), 적자전환 기업은 5.8%(142개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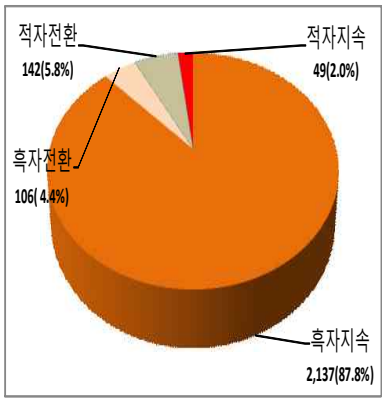
<매출액 순이익률>



<평균 순이익>



<당기손익 현황>



2. 2013년 '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' 운영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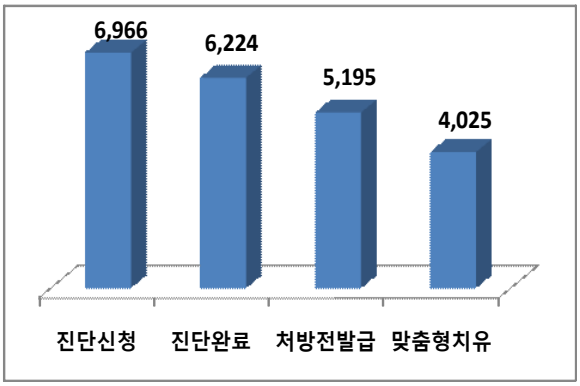
□ 중기청은 금년부터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**건강진단 기반의 맞춤형 지원**과 함께, 워크아웃기업이 **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**할 수 있도록 **'건강관리시스템'을 Two-Track 운영중**

□ **(기업건강 진단)** 금년 7월말까지 **월평균 1천개사의 진단신청**을 받아 **6,224개사**에 대해 **기업건강 진단을 완료**하고, **4,025개사**에 대해서는 **총 1조 1,270억원**(6,754건)을 **처방**하여 **맞춤형 치유를 실시**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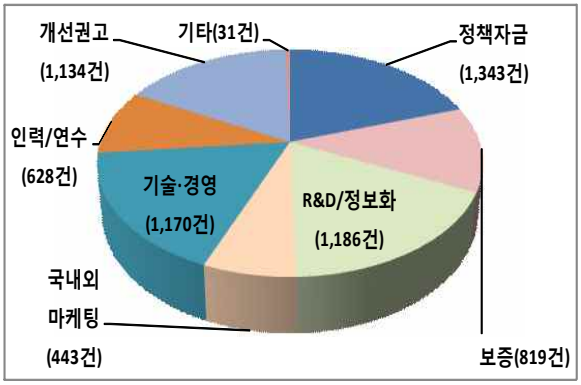
○ 처방전 발급내역은 정책자금(1,343건), 기술개발(1,186건), 기술·경영지원(1,170건), 신용보증(819건), 인력·연수(628건), 국내외 마케팅(443건) 등으로 총 6,754건의 맞춤형 치유사업이 처방되었음

- 특히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, 자본증자, 현장관리 수준 레벨 업 등이 시급한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**자체 개선을 권고**(1,1,34건)하여 **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초체질을 강화**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

< 중소기업 건강관리 현황(개사) >



< 처방전 추천내역(건) >



□ **(기업구조 개선)** 금년 4월부터 **자본잠식 또는 대규모 당기순손실 등으로 경영위기**를 맞은 워크아웃신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**채권은행단의 추천을 받아 기업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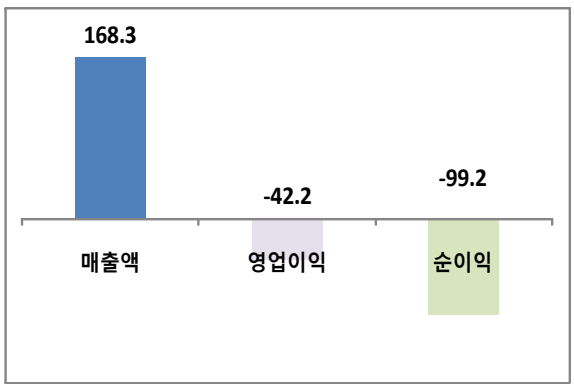
○ 7월말까지, **진단신청 8개사**[1] **중 5개사**에 대해서는 「**지역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**(위원장 : 지방중기청장)」**에서 기업구조 개선을 처방**[2] 하였으며, **3개사는 진단실시중**이거나 처방전 작성중

1」 지역별 신청현황(개사) : (경기지역) 4, (인천지역) 2, (경북지역) 1, (경남지역) 1

2」 기업구조 개선처방 현황(개사) : (신속 정상화) 3, (조건부 정상화) 1, (M&A 권고 등)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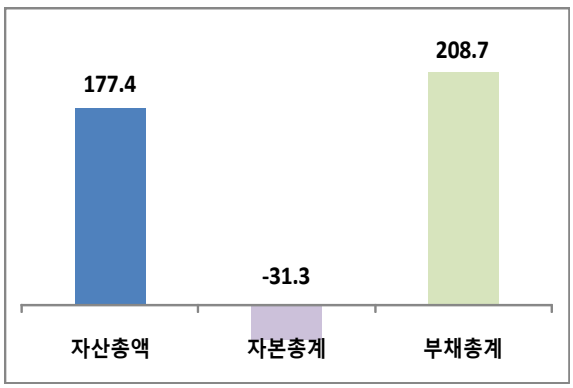
- **(재무현황)** 기업구조 개선처방을 받은 5개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 168.3억 원에, **영업손실 42.2억 원, 당기순손실 99.2억 원이 발생**하였으며, **31.3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**

< 2012년 평균 손익계산서(억원) >



(주) 기업구조 개선처방 5개사의 재무제표 평균

< 2012년 평균 대차대조표(억원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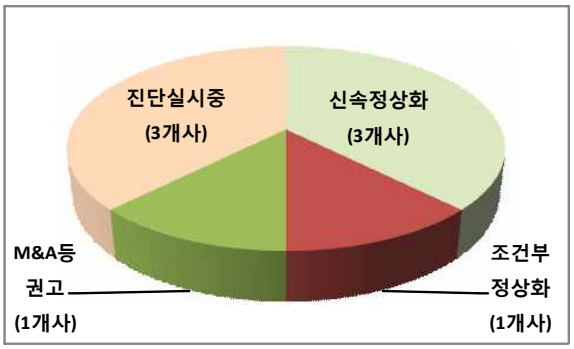


(주) 기업구조 개선처방 5개사의 재무제표 평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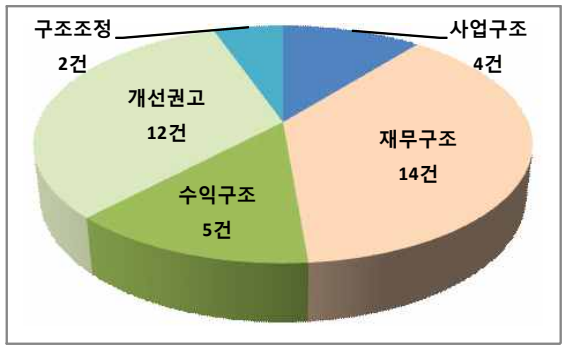
- (**처방내역**) 신속 정상화 처방을 받은 3개사에 대해서는 **사업구조 개선**(부실사업 정리, 사업전환)과 **재무구조 개선**(자본증자, 부동산 및 자산매각) **등 강력한 기업구조 개선노력**을 전제로

・기업경영 정상화 소요자금(28.1억원)을 진단기업(25%), 중진공(30%), 신・기보 및 채권은행단(45%)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원한 반면,

<기업구조 개선추진 현황>



<5개사 기업구조 개선내역>



- 1개사는 경영권 관련 복잡한 지분관계 정리시점까지 신규 지원을 보류(조건부 정상화)하였으며, 1개사는 M&A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

3. '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' 만족도 조사결과

◇ 조사기간 및 방식 : '13.7.15~7.24, 이메일, 팩스 조사(지방중기청)

◇ 조사대상 및 응답 : 금년 상반기 처방전 추천기업 3,801개사 중 1,484개사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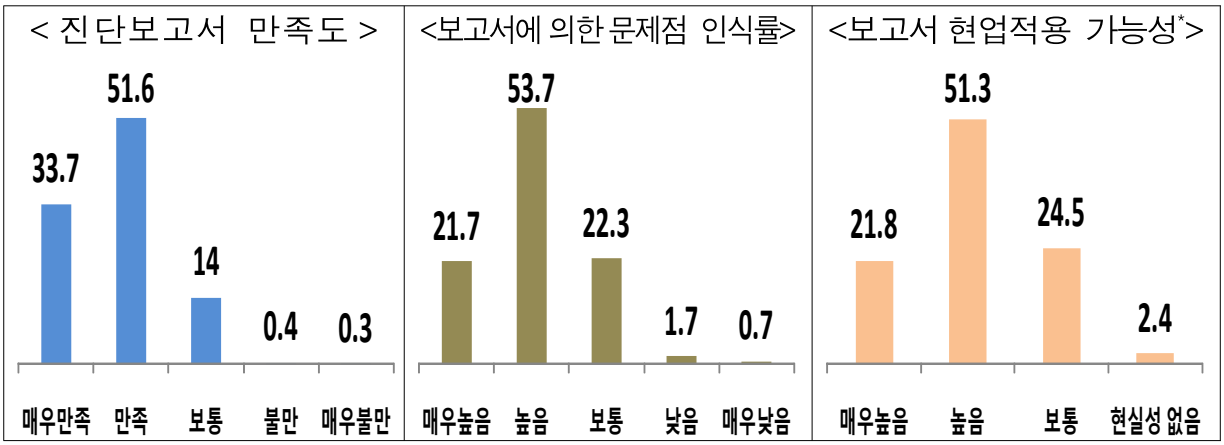
□ **금년도 상반기**중 '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'을 이용한 진단기업의 **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**으로 나타남

* 건강관리 만족도(%) : (매우만족) 37.4, (만족) 52.8, (보통) 9.2, (불만) 0.3, (매우불만) 0.3

□ **기업건강 진단보고서 만족도와 현업적용 가능성도 높은 편**

○ 진단보고서에 대해 85.3%가 만족하고, 75.4%가 경영・기술상 문제점을 인식하고,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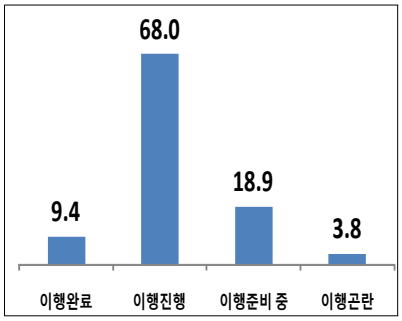
○ 보고서의 현업적용 가능성에 대해 73.1%가 실무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현실성 없음은 2.4%에 불과



* 현업적용 가능성 : 매우높음(90% 이상), 높음(70% 이상), 보통(50% 이상), 현실성 없음(30% 미만)

□ 지역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**진단기업 자체 개선권고 사항**에 대해서는 **77.3%가 이행을 완료했거나, 이행중**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

* 3.8%는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이행곤란을 응답

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건강관리팀 박정은 주무관(☎ 042-481-89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 추진 사례

경기 A社 외국계 은행의 대출상환 압박으로 워크아웃 신청(대출금 134.5억원)

☞ **(현황)** 사업다각화 실패, 매출감소 등으로 대규모 순손실 및 적자 발생
* 재무현황('12.6 → 13.6, 억원) : (매출) 207.4 → 177.7, (순이익) 7.5 →△135.6, (자본) 81.4 →△17.3

☞ **(진단)** B2C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펀더멘탈이 약화 ⇒ B2B 사업에 핵심역량 집중時 영업현금흐름을 토대로 정상화 가능

☞ **(처방)** ①B2C사업 자산매각(6억원 회수), ② 대표 퇴직연금 출자 등 자본증자(3.5억원), ③ 정상화 소요자금 7.5억원 지원, ④ 판관비 5% 절감 등

☞ **(예상)** ('13. 12월) 영업활동으로 14억원 확보 ⇒ ('14. 7월) 차입금 정상 상환

인천 B社 기존사업 실패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워크아웃 신청(대출금 114.4억원)

☞ **(현황)** 핵심사업 실패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대규모 순손실 및 자본잠식
* 재무현황('11 → '12, 억원) : (매출) 137.6 → 91.7, (순이익) 2.2 →△131.0, (자본) 29 →△101.5

☞ **(진단)** 기존에 투자를 했던 휴대폰 ○○○ 사업이 사양화에 접어들면서 자본잠식 ⇒ 신규 사업인 ○○○○ 매출 확대로 매출안정화 가능

☞ **(처방)** ①관련회사 또는 제3자 출자 등 자본증자(2.5억원), ②정상화 소요자금 7.5억원 신규 지원, ③수출역량강화사업 지원, ④불량률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컨설팅 지원 등

☞ **(예상)** 매출액(억원, 임가공 매출) : ('13.5) 52 → ('13.6) 60 → ('13.12) 120
매출액영업이익률(억원) : ('11) 8.57 → ('12) △54.37 → ('13) 4.68 → ('15) 12.25

인천 C社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급감 및 유동성 악화(대출금 112.9억원)

☞ **(현황)** 건설경기 침체와 대표이사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유동성 악화
* 재무현황('11 → 12, 억원) : (매출) 231.8 → 129.9, (순이익) △18.8 →△25.5, (자본) 24.1 → 13.2

☞ **(진단)** 前경영진의 건강악화, 저가수주,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손실 발생 ⇒ 안정적인 고객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공장유휴부지 매각 후 차입금을 상환하고, 저가수주 자제 및 원가절감 도모시 수익성 호전 예상

☞ **(처방)** ①판로채널 다각화(민수 → 민수+공공구매), ② 미활용공장부지 및 재고자산 처분(25억원), ③가수금 활용한 자본증자(1.75억원), ④정상화 소요자금 5.25억원 신규 지원, ⑤제조원가 및 재고축소 컨설팅 실시

☞ **(예상)** ('13. 12월) 매출액 38% 증가, 영업이익률 2.1% ⇒ ('15년) 경영정상화